

전남대, 개교 이래 첫 5·18 대규모 기념행사 개최

대학·시민사회·지자체 함께 열어
‘함께 만든 오월’ 대동정신 실천
미래세대 주도 ‘오월정신’ 계승
릴레이 헌혈 등 참여형 행사 다채

전남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북구청, 민주보훈과, 5·18기념재단, 총동창회, 민주동우회 등 지역사회와 지자체도 함께 참여해 ‘모두가 함께 만든 오월,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오월’을 목표로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가치인 대동정신을 구현했다.

특히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등 학생들이 처음부터 기획에 참여해, 위로부터의 기념이 아닌 미래세대가 주도적으로 오월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행사가 14일부터 18일까지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광주 곳곳에 마련된다.

행사는 민족·민주화성회 기간(14~16일)과 5·18 항쟁 기간(17~18일)으로 나

뉘어 진행되며, 1980년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과 대동정신을 되새기는 헌혈 나눔, 주먹밥 나눔, 민주평화대행진 등이 핵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민족·민주화성회 기간인 14일에는 △5·18 굿즈 디자인 공모전(온라인 개최) △그날의 벽화 그리기(5·18 광장 및 민주마루 앞) △릴레이 헌혈 나눔(도서관 별관 앞) △오월 영화 상영(5·18 광장, 우천 시민주마루)가 진행된다. 특히 릴레이 헌혈 나눔은 총장을 시작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해 1980년 당시의 헌혈 나눔 정신을 이어간다.

‘5·18 굿즈 디자인 공모전’은 전남대 재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5·18의 역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담은 디자인을 공모하며, 최종 수상작은 14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그날의 벽화 그리기’는 전남대 5·18광장과 민주마루에서 진행된다. 과거 교내에 있던 벽화를 각색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현 세대의 재해석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이근배 전남대 총장도 페인팅에 참여할 예정이다.

‘릴레이 헌혈 나눔’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도서관 별관 앞에서 진행된다. 헌혈은 총장을 시작으로 총동창회장, 민

주동우회장, 총학생회장, 보직교수 순으로 이어진다.

‘오월 영화 상영’에서는 1980년 5월, 신군부의 쿠데타와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긴장감 있게 그려낸 영화 ‘서울의 봄’이 상영된다. 영화 상영에 앞서 열사에 게 보내는 편지쓰기, 오월 퀴즈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이 역사적 맥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날 총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도 운영돼, 관람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영화를 즐기며 오월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16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전남대학교 제45주년 5·18 기념식(용봉홀) △대동 주먹밥 나누기(5·18 광장) △대학구성원 민주길 투어가 열린다.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는 총장을 비롯해 총동창회장, 민주동우회장, 대학 평의원의회장, 각 단과대 학(원)장, 부속 기관장, 총학생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어 전남대 용봉홀에서는 ‘전남대학교 제45주년 5·18 기념식’이 열리며, 기념식 직후에는 5·18 광장에서 ‘대동 주먹밥 나누기’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1980년 당시 시민들

의 연대와 돌봄의 상징이었던 주먹밥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행사에 앞서 김희송 5·18연구소 교수가 ‘5·18 민주화운동 속 주먹밥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동체 정신의 배경을 짚어줄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신입생 45명과 함께 ‘민주길 투어’에 나선다. 이번 투어는 정의길, 평화길, 인권길로 이어지는 전남대 캠퍼스의 역사적 동선을 따라 진행되며, 전빛누리 학생홍보대사를 비롯한 박수빈, 정세현, 이영상, 선사량 학생이 해설사로 동참해 오월정신의 의미를 또래의 언어로 전달한다. 특히 민주길 투어에는 이날 전남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를 수여받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참한다.

5·18 항쟁 기간인 17일에는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이어지는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진다. 이 행진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된 전남대 정문에서 출발해 항쟁의 마지막 무대였던 금남로까지 도보로 이어지는 대형 행사로, 당시의 합성과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상징적 퍼포먼스다. 전남대 교수회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직능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관계자, 민주노

총 등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으로,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오월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전남대 서울동창회 소속 졸업생들이 교내 민주길을 따라 진행되는 투어에 참여한다. 정의길, 인권길, 평화길로 이어지는 이 길은 전남대가 품고 있는 민주화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세대 간 기억과 가치를 잇는 소중한 여정으로 구성된다.

전남대는 행사 기간 중 추모객의 편의를 위해 민주길 코스에 위치한 주요 교내 건물의 화장실을 10일부터 2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이는 대학이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열린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이번 5·18 주간 행사는 오월정신을 단지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가 직접 체험하고 공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을 몸으로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전남대가 지닌 역사적 책임 위에서 세대 간 연대와 참여를 통해 그 가치를 계승하고, 오늘의 언어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시, ‘일자리인식’ 시민 실태조사 실시

27일까지 4905가구 대상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일자리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일자리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2025 광주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27일까지 16일간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9~64세 시민으로 표본 4905가구다. 조사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일에 관한 사항 △미취업·구직 관련 사항 △희망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취업 지원정책 △경력단절여성 △광주형 일자리 △기본 인구통계 등 총 8개 부문 52개 항목으로 구성, 지역 일자리에 대한 시민 인식을 폭넓게 파악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애로사항, 중장년 재취업 수요,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장애 요인 등 다양

한 계층의 일자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 수요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올 연말 광주광역시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제205011호)로, 광주광역시는 3년 주기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국정 화두로 떠올랐던 2019년 제1회 조사에서는 시민들이 지역 내 일자리 기회가 제한적이고, 임금 상승·고용 안정 등에 대한 우려가 확인돼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불안이 컸던 2022년 제2회 조사에서는 광주광역시 일자리 지원·취업 촉진 노력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아 기자

전남도,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발급 수수료 50%…선착순 접수

전라남도는 고물가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시행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발급 수수료의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전남도 지역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문서로,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선 직불 합의 핑계,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 이유로 원도급사가 제도 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부도나거나 공사를 포기할 경우 하도급사는 물론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업체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역 건설업체 전반에 생계 위협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전라남도는 이번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 공사 참여 기반을 마련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 북구, 장애체험 및 무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난 9일 비엔날레 전시관 야외 일원에서 무장애 북구만들기 시민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장애체험 및 무장애 인식개선

광주 북구 제공

전남도, 봄철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인력증개센터 일손돕기 유도

전라남도가 봄철 농번기를 맞아 급증하는 농촌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봄철 농촌인력 지원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농번기 동안 ‘농촌인력 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 시군 및 농협과 협력해 인력수급 현황, 인건비 동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시군 간 인력 조정 역할을 할 계획이다.

올해 봄철 농번기 동안 약 5만 헥타르에 달하는 주요 농작물 재배지에서 총 92만 500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이 중 60%인 약 55만 5000명을 공공 인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기관단체, 대학생 및 도시민의 일손돕기 참여 유도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지난해보다 43% 이상 대폭 확대해 올해 상반기 총 9000여 명이 19개 시군에 배치될 예정이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와 근로계약 관련 교육도 지속 추진해 고용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도내 농촌인력증개센터 46개소(국내인력 증개 31·공공형 계절근로 15)를 통해 총 17만 명의 인력을 증개할 계획이다. 증개센터는 시군별로 운영되며, 인력 증개 외에도 근로자 대상 농작업 교육과 지원을 수행한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한 뒤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농번기 인력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농가 호응이 높다.

대학생, 청년, 기관단체 직원 등이 농촌 일손돕기 현장에 투입되며, 도시농부 1천명을 모집해 인력 부족 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인력 확보와 인건비가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과 증개센터 운영을 강화해 농촌 인력수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